

##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포류(袍類)에 사용된 직물유형 연구

조 호 숙\* · 임 경 화\*\* · 김 지 연\*\*\*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A Study of Textiles used for *Po*(overcoat) in the Excavated Costumes of the Chosun Dynasty

Hyo-Sook Cho\* · Kyoung-Wha Lim\*\* · Ji-Yeon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003. 2. 24 투고)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extiles used for the ancient costumes that are excavated from tombs of the *Chosun* dynasty, focusing especially on *Po*(overcoat).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silk occupies 79.8% of all the textiles used for *Po*, and cotton and linen follow. The weaving method of silk was primarily plain and satin weaves. However the use of twill, gauze, and double weave, that had led weaving methods of silk during the *Koryo* dynasty, are considerably decreased in *Chosun* dynasty.

*Danyeong*(團領) and *Cheollik*(帖裏) had been made of various textile fabrics like cotton, linen, silk and blended fabric before *Imjinwaeran*(壬辰倭亂). After the war, they were simplified in gauze weaved silk or satin weaved silk, And also patterned fabric were widely used for them than other *Po*.

Simple fabrics like cotton, linen and plain weaved silk had been used for *Aekjureum*(腋主音) and *Jiklyeong*(直領) before *Imjinwaeran*. After the war, *Jiklyeong* was used as underwears of *Danyeong*, so it was made of high quality patterned silk.

*Dopo*(道袍) and *Changuiryu*(警衣類) were mainly excavated from tombs after the war, high quality plain weaved silk are used than gorgeous patterned silk.

For the *Dapho*(搭襖) and *Bansuui*(半袖衣), before the war, they were made with various textiles such as plain weaved silk, twill weaved silk, satin weaved silk, cotton, linen, and blended fabric. But after the war plain weave was mainly used.

In *Janguui*(長衣), since it was mostly for women, many kinds of women's *patterned silk* were used in than any other *Po*.

There were only a few excavation of *Simui*(深衣) and most of them were made of ramie and were hemmed in black satin without pattern.

Key words : *po*(overcoat)(포), excavated costumes(출토복식),  
plain weaved silk(평견), patterned silk(유문견)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출토복식은 선조의 분묘 이장시 관내에서 발견되는 복식류를 통칭하는 것으로, 묘주를 위해 새로 제작한 수의(壽衣)와 관내부를 채우기 위한 보공품(補空品)으로 구성된다. 출토복식은 대부분 묘주가 생전에 입었던 평시복이므로, 당시 일반 복식제도와 상장례를 이해하기 위한 실물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시대에 따른 의복의 형태 및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의복에 사용된 직물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직물도 보고서마다 다른 명칭으로 정리된 경우도 있다. 이제는 출토 사례도 많아졌고 이에 관한 보고서도 많이 축적되었으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조선시대 출토복식의 소재(素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성분·조직·문양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당시 의복의 품목에 따른 일반적인 직물 사용 경향 및 특성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조선시대 복식에 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이를 복원할 때에 소재 고증의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 범위는 출토복식 중에 가장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였던 포류(袍類)로 한정하였으며, 포류의 품목은 단령(團領)·철릭(帖裡)·액주름(腋主音)·직령(直

領)·장의(長衣)·심의(深衣)·도포(道袍)·담호(搭襖)·전복(戰服)·창의류(擎衣類)·주의(周衣)·장삼(長衫)·원삼(圓衫) 등으로 하였다. 안감과 동정·고름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사용된 걸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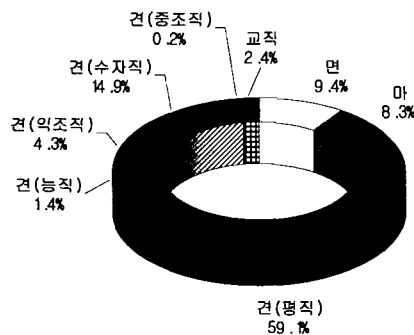
### 2. 연구 방법

조사대상은 15~19세기 남녀의 포류(袍類) 총 552점이다. 그러나 박물관 사정상 조사대상의 모든 유물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부 직접 조사<sup>1)</sup>한 자료를 참조하되 그간 발행된 출토복식 관련 보고서·전시도록·학위논문·학회지 등을 종합하는 간접 조사<sup>2)</sup>를 병행하였다. 보고서 등을 조사함에 있어 포류에 사용한 직물명칭이 기재된 유물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보고서에 나타난 유물의 총 수량과는 차이가 난다. 의복명과 직물자료는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보고서의 내용 중 장의·담호 등 형태는 같지만 보고서마다 다른 의복명이 사용된 경우 본 연구에서 명칭을 통일하여 재분류하였다.

직물의 유형은 성분 및 조직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크게 면·마·견·교직으로 나누었고, 세부적으로 마직물은 저포(紵布)와 마포(麻布)로, 견직물은 조직에 따라 평직·능직·익조직·수자직·중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교직물은 원사(原絲)의 종류에 따라 사면(紗綿)조직·사저(紗紵)조직·면저(綿紵)조직으로 세분하였다. 견직물은 문양의 유무에 따라 유문(有紋)직물·무문(無紋)직물로 구분하였다.<sup>3)</sup>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5					2	10						28
예안이씨	1584~1655	1	1															2
홍극가	?~1670																	
여홍민씨	1586~1656				1	5	2	2				1						11
경주이씨	?~1684	4				1						1						6
문화유씨	1617~1685					5												5
홍우협	1655~1691					21						2						23
최숙	1636~1698					15				1	3	1						20
홍진종	1649~1702		1			10												11
김덕원 일가	1634~1704	1			4	11						4	4					24
의원군	1661~1722			1		15	1		1		3	1						22
안동권씨	1664~1722				1	1							1					3
탐릉군	1636~1731					27			1		10							38
이태곤	1672~1763					3			1					2				6
홍감보	1699~1763					6			2									8
이익정	1699~1782					8			1	1	2	6						18
홍희준	1761~1841					4			1	2	1							8
이연용	1818~1879		1		1	6			1			2						11
계		52	27	19	7	319	5	3	16	8	63	19	1	12		1		552
		52	46			326		8		24		82	1		13			



<그림 1> 포류에 사용된 전체 직물의 구성비

### III. 신분별 직물 유형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묘주만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신분에 따른 직물 사용의 차이가 있었다. 정 3품 이상의 당상관의 복식은 견직물의 사용이 전체의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면과 마는 각각 3.8%, 5.6%로 나타났다. 견직물 중에서

는 평직 68.5%, 수자직 22.3%, 익조직 6.6%, 능직 2.3%, 중조직 0.2% 순으로 평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2><그림 2>.

당하관은 견직물 사용이 전체의 66.6%로 당상관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면과 마는 각각 15.8%, 14.2%로 당상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관직이 없는 진주하씨(1580~1646 추정)의 경우는 모두 면과 마로 편중되었다<표 3, 4><그림 2>.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신분에 따른 직물 사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양의 유무에 있어서도 당상관은 21.7%가 유문직물로 조사된 반면에 당하관은 4% 정도에 그쳐 신분에 따른 문직물 사용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표 3> 당상관이 사용한 직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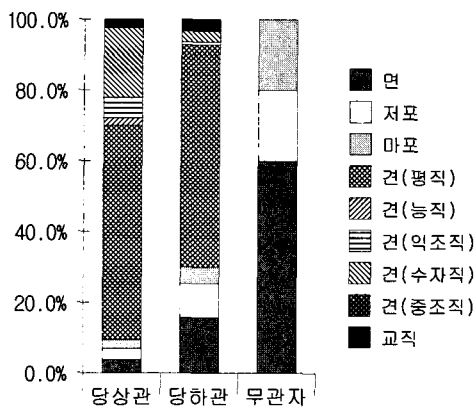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문양군	1431~1489					9											9	
변수	1447~1524					16				4	2	2	2				26	
김홍조	1461~1528	5		9		9				1					5	2	1	32
고운	1479~1530	5	3			4											12	
홍계강	1550년대			3		4				2		3	2				14	
정용두	1508~1572					15				1		4					20	
이언충	1524~1582	1	2			10	1					1					15	
이언용	1580년대	2	1			4						1	1				9	
장기정씨	1565~1614			1		5	1					4					11	
이용해	1547~1626					5		1				6					12	
양천허씨	1566~1626					5						1					6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5				2		10					28	
여흥민씨	1586~1656					1	5	2	2			1					11	
홍우협	1655~1691					21						2					23	
최속	1636~1698					15				1		3	1				20	
홍진중	1649~1702			1		10											11	
김덕원 일가	1634~1704	1				4	11					4	4				24	
탐릉군	1636~1731					27				1		10					38	
홍감보	1699~1763					6				2							8	
이익정	1699~1782					8				1	1	2	6				18	
의원군	1661~1722			1		15	1			1		3	1				22	
안동권씨	1664~1722					1	1							1			3	
이연용	1818~1879			1		1	6			1			2				11	
홍희준	1761~1841					4				1	2	1					8	
계		15	12	10	7	230	5	3	15	8	58	19	1	5	2	1	391	
			22			237	8		23		77			8				

<표 4> 당하관이 사용한 직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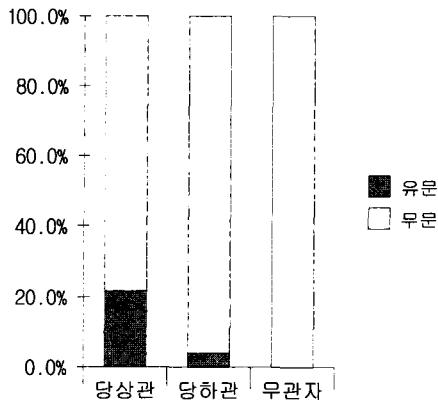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양천허씨	1400년대					2						1					3
정은	1418~1538	2	1			10						1					14
일선문씨	1550~1560 추정	1	2			2											5
신여관	1530~1580 추정					18								2(?)			20
신언식	1519~1582	3	1			2											6
이석명	1513~1583					13											13
김첨	1554~1584					2											2
이용태	1556~1586	4	6	3		4											17
김함	1568~1598	1				1						1					3
김위	임진왜란 전후	2				7						1					10
제주고씨 일가	임진왜란 전후	3	1	2		1											7
정휴복	1529~1604	4	1	1		9											15
문화유씨	1617~1685					5											5
이태곤	1672~1763					3				1				2			6
계		20	12	6		79			1		4						126
			18			79			1		4			4			

<표 5> 무관자가 사용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 포	마 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 직	사 면	사 저		면저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진주하씨	1580~1646 추정	3	1	1														5
계		3	1	1														5
				2														



<그림 2> 신분별 직물 유형의 비교



<그림 3> 신분별 문양 사용의 비교

7점, 마 5점, 견 25점, 교직 5점이다. <표 5>에서와 같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면·마·견·교직 등 직물의 유형이 비교적 골고루 나타나므로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여 착용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에는 면·마·교직의 단령은 없었으며 모두 견직물이었고 대부분이 익조직의 문사(紋紗)·수자직의 문단(紋緞)으로 단순화되었다.

단령에 주로 시문(施紋)된 문양은 운문(雲紋) 혹은 雲寶紋)이었으며 이는 문헌 기록과도 일치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용해(1547~1626)·장기정씨(1565~1614)·파평윤씨(?~1566 추정, 고려대 박물관 소장, 미공개) 묘에서는 화문(花紋) 단령도 출토되었다. 묘주가 여자인 장기정씨와 파평윤씨의 것은 연화만초문이었으며, 묘주가 남자인 이용해의 단령에는 모란문이 시문되었다. 또한 이들 3점의 화문 단령은 묘주의 몰년(沒年)이 16세기에서 17세기 초기였다. 묘주가 여자인 것으로 추정되는 연안김씨(임진왜란 이전 추정, 경기도박물관 소장, 미공개)의 단령은 연화문단이며, 전주이씨 묘역의 여성묘에서 출토된 단령(17세기 초반 추정, 미공개) 운문사로 되어 있다. 또한 청주한씨(1600년대 초, 광주이씨 묘역)의 무문단 단령과, 신분미상(연대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면 단령도 여성의 단령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sup>

#### IV. 품목별 직물 유형

##### 1. 단령(團領)

단령은 총 42점이 조사되었고 사용된 직물은 면

<표 6> 단령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 포	마 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 직	사 변	사 저		면 저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유 문	무 문						
변수	1447~1524					1			1									2
김홍조	1461~1528	1		2												2	2	7
고운	1479~1530	1																1
정은	1418~1538	1	1															2
홍계강	1550년대		1			1					1							3
정응두	1508~1572										1							1
신언식	1519~1582	1																1
신여관	1530~1580 추정					1												1
이연응	1580년대											1						1
벽진이씨	?~1585												1					1
이용태	1556~1586	1																1
제주고씨 일가	입진왜란 전후	1																1
전(傳) 박장군	입진왜란 직후			1														1
정휴복	1529~1604	1																1
장기정씨	1565~1614										1							1
이용해	1547~1626					1					1							2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
최숙	1636~1698										1							1
김덕원 일가	1634~1704										1							1
탐룡군	1636~1731					1					2							3
의원군	1661~1722										1							1
이태관	1672~1763								1									1
홍감보	1699~1763								1									1
이익정	1699~1782					1			1		1							3
홍희준	1761~1841										1							1
이연응	1818~1879					1			1									2
계		7	2	3		7			5		12	1			3	2		42
			5			7			5		13				5			

2. 철릭(帖裡, 帖裏, 天翼)

철릭은 총 123점이 조사되었고 철릭에 사용한 직물은 면 4점, 마 15점, 견 103점, 교직 1점으로 전체의 83.7%가 견직물이다. 그 중에서 평견직물의 사용은 견직물 전체의 72.8%를 차지하여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표 6>에 나타나 바와 같이 철릭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면·마·견·교직 등 다양한 직물 사용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단령과 마찬가지로 익조직의 문사·수자직의 문단으로 집약되었다. 특히 철릭은 다른 포류에 비해 익조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철릭은 문직물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주로

운문과 모란만초문(牡丹蔓草紋)·연화만초문(蓮花蔓草紋) 등의 화문이 시문되었으며, 홍계강(1550년대)의 유물에는 수파문(水波紋)도 있다. 그러나 용문(龍紋)·학문(鶴紋)과 같은 동물문이나 장의(長衣)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소화문·식물문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철릭이 다른 포류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설패대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한 것인데, 길과 소매가 평직의 무문견이더라도 설패대 만큼은 익조직의 사·라, 수자직의 단 혹은 중조직의 금선(金線)을 대어 부분을 강조하였다<표 7>. 그런데 16세기 초기에 돌아가신 김홍조(1461~1528)와 변수(1447~1524)의 철릭 설패대에는 익조직과 수자직

<표 7> 철릭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평직		능직		의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문양군	1431~1489					6												6
변수	1447~1524					11				2	1	2	1					17
김흠조	1461~1528	2		4		5									1			12
고운	1479~1530	1	2			3												6
정은	1418~1538					7												7
홍계강	1550년대		1			1			1		2							5
정응두	1508~1572					8			1		2							11
신언식	1519~1582		1			2												3
신여관	1530~1580					10												10
이언충	1524~1582		1			2					1							4
이용태	1556~1586	1	2	1		3												7
이언용	1580년대					1												1
이석명	1513~1583					8												8
순천김씨	1530~임진왜란 이전		1			1												2
김위	임진왜란 전후					2												2
김덕령	1567~1596		1			1												2
정휴복	1529~1604		1			3												4
이용해	1547~1626										2							2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							2
문화유씨	1617~1685					1												1
최숙	1636~1698										2	1						3
김덕원 일가	1634~1704										1							1
탐룡군	1636~1731								1		1							2
홍감보	1699~1763								1									1
이익정	1699~1782										1							1
의원군	1661~1722										1							1
홍희준	1761~1841								1	1								2
계		4	10	5		75			7	3	16	2			1			123
																	1	

<표 8> 철릭의 섯바대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 길·소매 ●: 섯바대

묘 주	시 기	면	마		평직		능직		의조직		수자직		중조직	교직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사면	저사	면저		
김흠조	1461~1528					○							●					
							○			●			●		○			
							○					●		●				
							○				●			●				
변수	1447~1524					○					○		●					
						○						●						
											○		●					
신언식	1519~1582					○					●							
						○					○							
신여관	1530~1580 추정					○				●								
						○					●			●				
						○								●				
						○								●				



외에 중조직의 금선단도 보이는데, 이후의 철릭의 섣바대는 대부분 수자직 직물이며 금선단은 나타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 3. 액주름(腋主音)

액주름은 총 24점이 조사되었고 사용한 직물은 면 6점, 마 4점, 견 14점으로 전체의 58%가 견직물이다<표 8>. 주로 무문평견이 사용되었고 예외적으로 홍계강의 묘에서 출토된 무문단 액주름도 있다. 임진왜란 전후로는 면포와 마포도 사용되었다. 액주름은 임진·병자 양란 이후에는 거의 볼 수 없는데, 같은 시기의 단령과 철릭이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액주름은 고급 문직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도포·대창의·중치막·창옷·주의 등 다양한 포제(袍制)가 등장하면서 직령이 편복(便服)보다는 단령의 밀받침용으로 고정되어 착용됨에 따라 운문사·운문단과 같이 단령과 동일한 소재의 고급 문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여관(1530~1580 추정)의 유물은 위사는 없어지고 경사만 남았으므로 교직으로 추측된다.

### 5. 장의(長衣)

장의는 총 70점이 조사되었다. 면 7점, 마 4점, 견 57점, 교직 2점으로 견직물의 비중이 전체의 81.4%를 차지한다. 견직물 중 무문평직이 전체 56.1%로 가장 많았고, 유문수자직이 24.5%로 다음으로 많았다. 익조직과 중조직을 제외하고 골고루

<표 9> 액주름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중조직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사면	지사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문양군	1431~1489					1														1
정은	1418~1538					1														1
홍계강	1550년대					1							1							2
정응두	1508~1572					1														1
신여관	1530~1580 추정					1														1
신언식	1519~1582	1																		1
이언충	1524~1582		1																	1
이석명	1513~1583					2														2
벽진이씨	?~1585	1				3														4
이용태	1556~1586		2																	2
이언용	1580년대	2	1																	3
제주고씨 일가	임진왜란 전후	1																		1
정휴복	1529~1604	1				2														3
문화유씨	1617~1685					1														1
계		6	4			13		0	0		1		0						0	24

### 4. 직령(直領)

직령은 총 44점이 조사되었으며 면 12점, 마 6점, 견 24점, 교직 2점이다<표 9>.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면·마·평견의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익조직·수자직도 등장하였다.

사용되었고, 다른 포류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능직도 나타났다<표 10>.

장의는 전체 포류 중 문직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시문된 문양도 연화만초문·모란만초문·난초나비문·길상화문·소화문 등 다양하여, 철릭과 단령의 획일적 문양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장의가 주로 여자의 포류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표 10> 직령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요 주	시 기	면	마		전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의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문양군	1431~1489					1											1
김홍조	1461~1528	2															2
고운	1479~1530	2															2
정은	1418~1538					1											1
홍계강	1550년대					1											1
정응두	1508~1572					1											1
신여관	1530~1580 추정					1								2(?)			3
신언식	1519~1582	1															1
이언충	1524~1582	1				3											4
이석명	1513~1583					1											1
벽진어씨	?~1585					1											1
이용태	1556~1586	2	1	2													5
김위	임진왜란 전후					1											1
제주고씨 일가	임진왜란 전후	1	1	2		1											5
전(傳) 박장군	임진왜란 직후	2															2
정유복	1529~1604	1				1											2
이용해	1547~1626					3					1						4
문화유씨	1617~1685					1											1
김덕원 일가	1634~1704										1						1
탐릉군	1636~1731										3						3
의원군	1661~1722								1								1
홍감보	1699~1763					1											1
계		12	2	4		18			1		5					2	44
			6						1		5						

<표 11> 장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요 주	시 기	면	마		전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의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사저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양천허씨	1400년대					2					1						3
홍계강	1550년대											1					1
일선문씨	1550~1560 추정	1	1			2											4
신여관	1530~1580 추정					2											2
김첨	1554~1584					2											2
이용태	1556~1586		1			1											2
이언웅	1580년대					3					1						4
김위	임진왜란 전후					1											1
김덕령	1567~1596	1															1
김합	1568~1598	1				1					1						3
장기정씨	1565~1614					2	1				3						6
양천허씨	1566~1626					4					1						5
진주하씨	1580~1646	2	1	1													4
여흥민씨	1586~1656					1	5	2	2		1						11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4						4
경주어씨	?~1684	1				1					1						3
문화유씨	1617~1685					2											2
김덕원 일가	1634~1704	1				2	2				1	1					7
안동권씨	1661~1722					1	1										2
이태곤	1672~1763					1										2	3
계		7	3	1		4	32	3	2		14	2		2			70
			4			36		5			16			2			

포류에 비하여 소재나 문양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의 길과 소매가 무문직물이더라도 깃과 겨드랑이 무는 화려한 문직물을 낸 것이 많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여흥민씨(1586~1656)의 장의 1점은 길에 화려한 문직물을, 깃과 겨드랑이 무는 무문직물을 사용하였다. 또한 길은 무문평직, 겨드랑이 무는 무문능직을 사용하여 같은 무문직물이라도 길과 무의 조직을 달리 사용한 것도 있었다.

6. 심의(深衣)

심의는 총 5점이 출토되었는데 저포 2점 마포 1점, 익조직의 무문사 1점, 수자직의 무문단 1점이

다. 의원군(1661~1722)의 심의는 마포로, 이연웅(1818~1879)의 심의는 저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장식은 모두 검정색 무문단으로 둘러져 있어 문헌자료와 일치한다.<sup>6)</sup> 그러나 풍산홍씨의 무문사 심의는 향라로 둘러져 있다. 이익정(1699~1782)의 유물은 무문단을 사용하였는데, 선장식도 동일한 직물인 검정색 무문단으로 하였다<표 11>.

7. 도포(道袍)

도포는 총 16점 조사되었는데 신분미상의 예안이씨(?~1670)를 제외하고 모두 3품 이상의 당상관의 묘에서만 볼 수 있었다. 사용한 직물은 먼 1점, 마 2점, 견 13점으로 견직물이 많았으며 견직물 중

<표 12> 심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홍진중	1649~1702		1															1
이익정	1699~1782											1						1
의원군	1661~1722			1														1
홍희준	1761~1841									1								1
이연웅	1818~1879		1															1
계			2	1						1		1						
			3						1		1							5

<표 13> 도포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이석명	1513~1583					1												1
전(傳) 박장군	임진왜란 직후	1																1
장기정씨	1565~1614		1			1												2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
예안이씨	?~1670			1														1
의원군	1661~1722					1												1
탐릉군	1636~1731					2												2
홍감보	1699~1763					1												1
이익정	1699~1782					2						1						3
이연웅	1818~1879					2												2
홍희준	1761~1841					1												1
계		1	1	1		11				1		1						
			2		11			1		1							16	

무문평직이 11점이나 되었다. 도포는 주로 임진왜란 이후의 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조선 후기 사대부의 대표적인 편복 포로서 대부분 화려한 문직물보다는 견(絹)이나 초(綃)와 같이 품질이 좋은 평견 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래정씨 일가(1574~1669)에서 출토된 도포는 익조직의 삼죽항라로 되어 있고 이익정의 묘에서 출토된 도포는 무문 수자직의 공단으로 되어있어 심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용은 아니지만 18세기까지도 다양한 직물사용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12>.

8. 답호(搭褱, 搭胡, 塔胡)·반수의(半袖衣)·전복(戰服)

답호와 전복은 보고서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령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나 소매가 반수(半袖) 혹은 무수(無袖)인 것을 답호로 지칭하였고 맞깃으로 소매가 짧은 것은 반수의로, 소매가 없는 것은 전복으로 분류하였다.

답호·반수의는 총 54점이 조사되었다. 면 2점,

마 5점, 견 44점, 교직 3점으로 견직물이 가장 많고, 견직물 중에는 무문평직이 70%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나 변수와 김홍조의 묘에서는 답호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평견직물 이외에도 익조직의 화문사와 무문사, 수자직의 무문단, 마, 교직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언충(1524~1582)의 유물에는 수파문이 시문된 룡(綾)도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이전에는 평직·능직·익조직의 견, 면, 마, 교직 등 다양한 직물이 나타나지만, <표 13>에서와 같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평견직물로 단순화되었다.

전복은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하며, 면 1점, 견 7점으로 답호에 비해 출토량이 많지 않다. 평직·능직·익조직·수자직 등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마·중조직·교직은 없다<표 14>.

9. 창의류(擎衣類)

창의류는 대창의·소창의·중치막 등 옷의 일부분에 트임이 있는 포를 총칭한 것으로, 임진왜란을

<표 14> 답호·반수의

묘 주	시 기	면	마		견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문양군	1431~1489					1											1
변수	1447~1524					4				1	1		1				7
김홍조	1461~1528			3		4				1				2		1	11
장택고씨	1479~1530	1		1		1											3
정온	1418~1538	1				1						1					3
홍계강	1550년대		1							1							2
정응두	1508~1572					5						1					6
신여관	1530~1580 추정					3											3
이언충	1524~1582					5	1										6
이석명	1513~1583					1											1
정휴복	1529~1604					1											1
이용해	1547~1626											1					1
최속	1636~1698					1											1
김덕원일가	1634~1704												1				1
탐릉군	1636~1731					1						2					3
의원군	1661~1722					1											1
이익정	1699~1782					1											1
이연응	1818~1879				1	1											2
계		2	1	4	1	31	1		3	1	5	2		2		1	54
			5			32		1		4		7			3		

<표 15> 전복

요 주	시 기	면	마		건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			1						1							3
홍우협	1655~1691										1							1
최숙	1636~1698				1					1								2
의원군	1661~1722						1				1							2
계		1			2		1			1	3							8
					2		1			1	3							

전후로 등장하여 조선 후기의 분묘에서 대량 출토되었다. 총 153점이 조사되었으며 면 10점·마 1점·건 142점으로 건직물의 사용이 우세하다. 그중 평직이 8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자직의 단류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포류와는 달리 능직·익조직·중조직은 한 점도 없었다<표 15>.

임진·병자 양란 전후로 추정되는 김위·전(傳)

박장군·정휴복(1529~1604)·진주하씨 등의 유물에서는 특별히 면직물 창의류가 보이고 있어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홍우협(1655~1691)·김덕원 일가(1634~1704)·동래정씨 일가(1574~1669)·탐릉군(1636~1731)·이익정(1699~1782)·의원군(1661~1722) 등의 유물에서는 수자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직위가 높

<표 16> 창의류

요 주	시 기	면	마		건								교직			계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저포	마포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김위	임진왜란 전후	2				3						1						6
전(傳) 박장군	임진왜란 직후	2																2
정휴복	1529~1604	1		1		2												4
장기정씨	1565~1614					2												2
이응해	1547~1626					1		1			1							3
양천허씨	1566~1626					1												1
구례손씨	1576~1626					1												1
진주하씨	1580~1646	1																1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11					3							14
홍극가	?~1670	1																1
경주이씨	?~1684	3																3
홍우협	1655~1691					21					1							22
최숙	1636~1698					13												13
홍진중	1649~1702					10												10
김덕원 일가	1634~1704				2	9						2						13
의원군	1661~1722					12						1						13
탐릉군	1636~1731					23					2							25
이태곤	1672~1763					2												2
홍감보	1699~1763					4												4
이익정	1699~1782					4						4						8
홍희준	1761~1841					2												2
이연용	1818~1879					1						2						3
계		10		1	2	122		1			8	9						153
				1		124		1			17							

은 관리 또는 왕가의 후손인 만큼 고급 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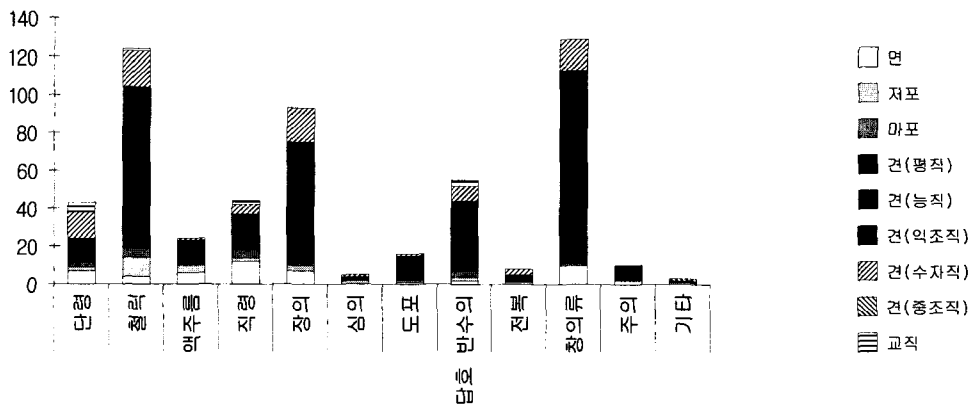
대창의·소창의·중치막 등 의복 형태에 따른 직물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직물의 밀도가 기록되어 있는 일부 보고서<sup>7)</sup>에 의하면, 주로 대창의의 밀도가 높게 측정되어 있어 다른 창의류보다 세밀한 고급 직물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0. 주의형(周衣形)

칼깃에 의복 전체가 두루 막힌 형태의 포를 주의형으로 분류하였다. 면 2점 이외에 모두 무문의 평건 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직·익조직·수자직의 고급직물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표 16>.

<표 17> 주의형

묘 주	시 기	면	마		건								교직			계		
			저포	마포	평직		능직		익조직		수자직		중조직	사면	저사		면저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유문	무문						
전(傳) 박장군	임진왜란 직후					1												1
김덕령	1567~1596	2				1												3
동래정씨 일가	1574~1669					3												3
의원군	1661~1722					1												1
홍희준	1761~1841					1												1
이연응	1818~1879					1												1
계		2				8												10



<그림 6> 포류의 품목별 직물 사용 유형

### 11. 기타

일선문씨(1550~1560 추정)의 묘에서 장삼 1점<sup>8)</sup>, 안동권씨(1664~1722)의 묘에서 원삼 1점<sup>9)</sup>이 출토되었다. 일선문씨 장삼은 저포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악학궤범(樂學軌範)』에 기록된 장삼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다<sup>10)</sup>. 원삼은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의복 전체에 중조직을 사용한 것인데, 수자직 바탕에 금사(金絲)를 위입(緯入)하여 무늬부분만 중조직으로 짠 금선단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이익정의 묘에서 출토된 익조직의 적초의(赤緇衣)가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출토복식의 직물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그간 발표되었던 출토복식 관련 논문·도록 및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선시대 포류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을 분석하여, 품목별 일반적인 직물 사용 경향 및 특성을 알아보았다.

모든 포류의 직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견직물의 사용이 전체의 79.8%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묘주들이 대부분 관직을 지낸 상류 계층이며, 대부분 조선시대 사대부에서 걸옷으로 입었던 포류이기 때문이다. 견직물 중에는 평직과 수자직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능직과 익조직의 견직물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묘주만을 대상으로 직물을 비교해 본 결과, 신분에 따라 직물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당상관 포류에 사용된 직물 유형은 견직물이 전체의 88.2%를 차지하며 그 중 21.7%는 문직물이었다. 이에 비해 당하관은 견직물의 사용 빈도가 떨어지며 특히 문직물은 4%에 불과해 당상관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포의 종류에 따른 직물 사용 경향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단령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면·마·견·교직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후기에는 대부분이 익조직의 문사와 수자직의 문단으로 단순화되었다. 주로 사용된 문양은 운문이다.

철릭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면·마·견·교직 등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다. 단령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익조직의 문사와 수자직의 문단이 집중되어 나타나며, 다른 포류에 비해 익조직과 문직물이 비교적 많았다. 주로 사용된 문양은 운문이었으나 그 외에 모란만초문과 연화만초문 등의 화문도 있었다. 또한 철릭은 섣바대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길과 소매가 평직의 무문견이더라도 섣바대 만큼은 익조직의 사·라, 수자직의 단 또는 중조직의 금선을 대었다.

액주름은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의 분묘에서 출

토되었는데 같은 시기의 단령과 철릭이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무문평견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임진왜란 전후로는 면과 마도 사용되었다.

직령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면·마·평견과 같은 소박한 직물의 사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익조직의 문사나 수자직의 문단도 나타났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직령이 편복 보다는 단령의 밑받침용으로 고정되어 착용됨에 따라 운문단이나 운문사와 같이 단령과 동일한 소재의 고급 문직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장의는 전체 포류 중 직물의 종류와 문양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여성의 포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포류에 비하여 소재나 문양의 선택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익조직과 중조직을 제외하고 골고루 사용되었으며, 다른 포류에 별로 쓰이지 않은 능직도 있다. 사용된 문양은 연화만초문·모란만초문·난초나비문·길상화문·소화문 등으로, 단령과 철릭에서 획일적 문양이 사용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장의는 깃과 겨드랑이 무에 길·소매와 다른 별도의 화려한 문직물을 대기도 하였다.

심의는 출토량이 많지는 않으나 그 중 저포가 많았으며 저포로 만든 심의라도 가장자리의 흑선은 단으로 하였다.

도포는 주로 임진왜란 이후의 묘에서 출토되었고, 단령·철릭과 같이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견·초와 같이 품질이 좋은 평견이 많았다. 또한 신분미상의 예안이씨를 제외하고 모두 3품 이상의 당상관의 묘에서만 출토되었다.

답호·반수의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평직·능직·익조직의 견, 그리고 면·마·교직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부분 무문평견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하며 출토량이 많지 않다. 평직·능직·익조직·수자직 등의 견직물이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중조직·교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창의류는 임진왜란 전후에 등장하여 조선 후기의 분묘에서 다량 출토되었다. 평직의 사용이 우세

하며 능직·익조직·중조직은 보이지 않는다. 양란 전후로는 면직물이, 직위가 높은 관리나 종친의 분묘에서는 수자직이 출토되었다. 대창의는 다른 창의류보다 고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주의(周衣)형은 칼깃에 의복 전체가 두루 막힌 형태의 포를 통칭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무문평직으로 되어 있다.

### 참고문헌

- 1) 변수묘·일선문씨묘·이응태묘·장기정씨묘·진주하씨묘·여흥민씨묘·의원군묘·안동권씨묘·이연응묘·이익정묘
- 2) 반월출토 안동김씨 출토복식은 1800년대 말에서 1960년대까지의 유물이 광범위하게 뒤섞여 있어 연구자들이 보고서만으로는 시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건들바우박물관(한국무속박물관) (1991). 진주하씨묘 출토문헌과 복식조사보고서.
  -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광주 고읍 인평대군과 의원군 일가
  - 고부자 (1993). 고양시 행신동 출토 양친허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1호, pp. 143~163.
  - 고부자 (1995). 충북 충주시 목계동 출토 풍산홍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3호, pp. 51~57.
  - 고부자 (1997). 천안시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 연구. 한국복식, 15호, pp. 65~81.
  - 고부자 (1999). 일영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7호, pp. 41~58.
  - 고부자 (2001). 상암동 출토 전주이씨 익정 유물연구. 한국복식, 19호, pp. 85~104.
  - 고부자, 박성실 (1992). 서울 하계동 출토 문화유씨 유물소고. 한국복식, 10호, pp. 107~118.
  - 고부자, 박성실 (1991). 고양 능곡 무원 출토 나주정씨 월현공파 출토유물 소고. 한국복식, 9호, pp. 45~57.
  - 고부자, 박성실 (1990). 여주출토 동래정씨 출토유물. 한국복식, 8호, pp. 71~79.
  - 고부자, 박성실 (1989). 성남출토 동래정씨 출토유물에 관한 소고. 한국복식, 7호, pp. 123~153.
  - 광주민속박물관 (2000). 하천 고운 출토유물.
  - 국립민속박물관 (2000).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김영자, 김명숙, 장인우, 이수봉 (1999). 조선시대 복식연구. 학연문화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6). 중요민속자료편
- (下). 문화재대관
- 박성실 (1985).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소고. 한국복식, 16호, pp. 31~48.
- 박성실 (1993). 경주군 돌마면 후율리 출토 전주이씨의안대군 양소공파 유물 소고. 한국복식, 11호, pp. 57~89.
-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성실 (1994). 천안 쌍용동 출토 풍산홍씨 유물 소고. 한국복식, 12호, pp. 119~128.
- 박성실 (1996). 화성 구포리 출토복식 소고. 한국복식, 14호, pp. 49~66.
-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성주이씨 대사헌 언충묘 복식 고찰. 한국복식, 20호, pp. 89~105
- 박진영 (2000). 조선시대 복식유물에 관한 연구 -소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여대석사학위논문
- 배상경 (1992). 숙부인 여흥민씨 유의에 관한 보존처리 및 복식사적 고찰. 경기향토사료집, 제5집, 경기도 문화재관리국 (1994). 복식보존처리보고서(1992~1994)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1988). 진천출토 경주이씨 유물. 한국복식, 6호, pp. 52~55.
- 안명숙 (2001). 17세기 여자 출토복식의 일례 -전남영암출토 경주이씨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1-4, pp. 5~14.
- 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안동지역 전통복식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포항내단지 장기정씨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보고서
- 영주시 (1998). 판결사 김흠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출토유물의 및 근대복식논고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임진왜란전후 출토복식 및 사례
- 충북대학교박물관 (1995). 우리나라 16·17세기 출토복식
- 3) 주(紬)·세주(細紬)·삼팔주(三八紬)·명주·설한초(雪寒綃)·숙초(熟綃)·궁초(宮綃)·갑중(甲縐) 등은 무문 평직물로, 화문초(花紋綃)·화문주(花紋紬)·문주(花紋紬) 등은 유문 평직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항라(亢羅)·빙사(氷紗)·순인 등은 무문 익조직으로, 운문사(雲紋紗)는 유문 익조직으로, 화문단(花紋緞)·운문단(雲紋緞) 등은 유문 수자직으로 분류하였다.
- 4) 영조실록. 52년 3월 9일 柳綠雲紋緞團領  
숙종인현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鴉青雲紋大緞



숙종인원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鴉青雲紋大緞  
순조순원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柳綠雲紋大緞  
藍雲紋大緞

현종효현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鴉青雲紋大緞  
藍雲紋大緞

철종철인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鴉青雲紋大緞  
藍雲紋大緞

고종명성후 가례도감의궤. 妃父의 團領 鴉青雲紋大緞  
藍雲紋大緞

- 5) 송미경 (2002). 조선시대 여성단령에 관한 연구 -출토 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52(8), pp. 151~160.
- 6) 『상례비요(喪禮備要)』와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심의는 백세포(白細布)를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김병국(1825~1904)의 『신종록(愼終錄)』에는 세포(細布)에 흑공단(黑貢緞)으로 선을 두른다고 되어 있다.
- 7) 경기도박물관 (2001). 앞 책.
- 8)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앞 책.
- 9) 경기도박물관 (2001). 앞 책.
- 1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앞 책, pp. 190~193.